

안세영, 싱가포르오픈 우승...시즌 4승

세계 3위 아마구치 2-1 제압

2년 만에 대회 정상 탈환...최강자 재입증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올해 4번째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안세영(세계랭킹 1위)은 31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아마구치 아카네(세계랭킹 3위)를 2-1(21-11 17-21 21-19)로 꺾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오픈, 지난달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이어 시즌 4번째 우승(단체전 대회 제외)을 차지하며 여자 단식 최강자임을 재입증했다.

올해 출전한 개인전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건 지난 3월 준우승했던 전영오픈이 유일하다.

지난해 이 대회 8강에서 탈락하며 3연패가 무산됐던 안세영은 2년 만에 정상 탈환하는 기쁨도 누렸다.

이날 승리로 안세영은 아마구치와 상대 전적에서 18승 15패로 앞서게 됐다.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다.

안세영은 1게임 5-6에서 연속 5점을 획득하며 경기를 뒤집었고, 이후 16-10에서 4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2게임에서 15-12로 앞서가던 안세영은 아마구치의 공격에 고전하며 연속 5점을 허용했다.

이후 17-17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4연속 실점하며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안세영은 3게임에서 점진 끝에 승리를 수확했다.

16-17로 근소하게 뒤진 안세영은 연속 2점을 헌납하면서 고비가 찾아왔지만, 특유의 뒷심으로 4연속 득점하며 20-19로 역전했다.



안세영(1위)이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칼랑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싱가포르 오픈(슈퍼 750)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천위페이(4위·중국)를 꺾은 후 세리머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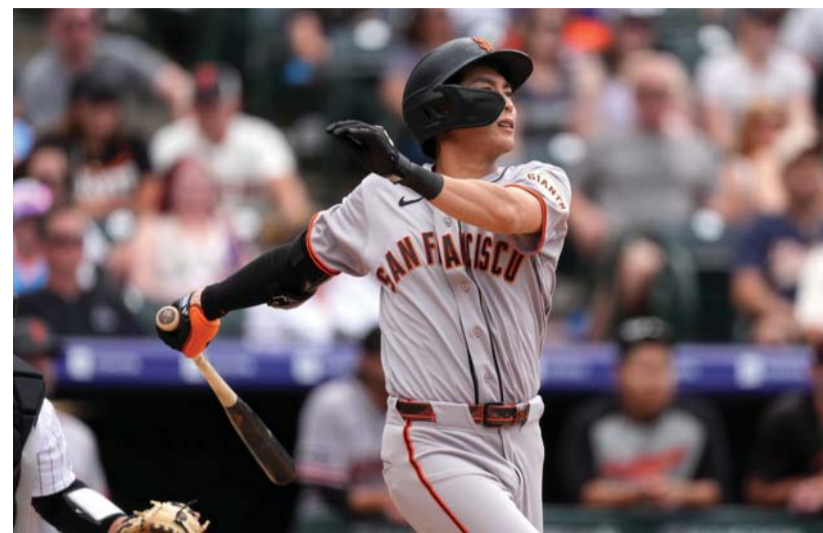
이어진 승부에서 아마구치가 범실을 범하면서 안세영의 우승이 확정됐다. 대회를 마무리한 안세영은 6월 2

일 개막하는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에 출전해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뉴시스

'바람의 손자' 5안타...감독 함박웃음

"이게 바로 이정후"...샌프란시스코 19-6으로 대승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한 경기에서 안타 5개를 몰아치자 사령탑도 "이것이 바로 이정후"라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이정후는 1일(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벌어진 2026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6타수 5안타를 때려내고 타점 2개에 1득점을 올렸다.

이정후의 활약 속에 샌프란시스코는 19-6으로 대승을 거뒀다.

2024년 MLB에 입성한 이정후가 한 경기에 5안타를 친 것은 빅리그 데뷔 이후 처음이다.

KBO리그 히어로즈에서 뛰던 시절에도 딱 한 번 한 경기 5안타를 작성했다. 2018년 8월 11일 고척 LG 트윈스전에서 6타수 5안타를 날렸다.

허리 근육통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이정후는 부상을 털고 지난

달 30일 복귀한 이후 맹타를 휘둘렀다. 5월 30일과 31일 플로리다전에서 각각 5타수 4안타, 4타수 2안타를 때려냈다.

이번 콜로라도와의 3연전에서 15타수 11안타를 날린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04까지 끌어올렸다.

토니 바이렐로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경기 후 MLB닷컴 등 현지 매체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바로 이정후의 본 모습"이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어 "아마 우리 팀 내에서 이정후가 잘 맞는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아웃된 경우가 가장 많은 타자일 것"이라며 "이정후는 무척 재능있는 타자"라고 칭찬했다.

야수 정면으로 향해 불운이 따를 뿐 타구의 질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상 복귀 이후 불방망이를 휘두른 이정후는 5월 월간 타율 0.31383타수 26안타를 작성했다.

/뉴시스

전남드래곤즈, 서울이랜드에 0-1 패배...‘홈 첫승 다음으로’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가 시즌 홈 첫승과 감독 부인 데뷔승 기록으로 침체된 팀 분위기 반전을 가져올 승리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전남은 5월 31일 오후 4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서울이랜드FC(이하 서울이)와의 홈경기에서 원정팀 서울이에게 후반 막판에 실점을 허용함으로써 0-1로 패했다.

이로써 서울이는 연속 가도를 달리며 2위로 상승했고, 전남은 연패에 빠지고 말았다.

이날 광양교육청 네이밍데이에 열린 경기에서 7623명의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패배에도 불구하고 서포터즈 '미르'는 '힘을 내라 전남'을 외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았다.

홈팀 전남은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원정팀 서울이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양 팀은 초반 탐색전에 이어 본격적으로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전반 26분 서울이랜드 강현제가 텅 빈 골문에 강력한 슈팅을 날렸으나 전남 수비수 유지하가 몸을 날려

시팀 분위기 반전...월드컵 휴식기때까지 시간필요



헤더로 막아냈다. 결국 전반전은 득점 없이 0-0으로 종료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남은 김경준과 최한솔, 윤영석을 불러들이고 정지용과 박태용, 윤민호를 한 번에 넣었다. 서울이는 후반 11분 서진석과 변경준, 강현제를 빼고 조준현과 까리우스, 에울레르를 투입했다. 후반 18분 전남은 김범수가 더 이상 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울이는 같은 시간 김주환 대신 손혁찬을 넣

었다.

전남은 후반 20분 김범수 대신 김용환을 투입했다. 후반 21분 전남은 정지용의 환상적인 감아차기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뿔겨 나왔다. 전남은 후반 31분 민준영마저 근육 문제를 호소하며 더 이상 뺄 수 없다는 신호가 나왔다. 전남은 후반 32분 민준영을 정태인으로 대체했다.

서울이는 후반 33분 박재용 대신 김현을 출전시켰다. 후반 43분 서울

E의 골이 터졌다. 역습 상황에서 손혁찬이 낮게 크로스를 올렸다.

혼전 상황에서 전남 수비끼리 엉키는 상황에서 불이 두 선수 다리 사이에서 흘러나오 것을 채도하던 서울이 E 까리우스가 침착하게 공을 차 넣어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정규시간이 모두 종료되고 후반 추가시간은 5분이 주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득점 없이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서울이랜드는 원정에서 전남을 1-0으로 꺾고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임판식 감독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막판에 실점해 패했다. 월드컵 휴식기 전 홈 마지막 경기였다.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 팬들께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이 주어 진다면 월드컵 휴식기 때 지금의 템포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상대를 압박하고 싶다. 그게 내 축구의 결정적인 부분이였다"고 덧붙였다.

/광양·조순의 기자

조유민 부상...홍명보호, 조위제 발탁

센터백 조유민, 트리니다드토바고전서 발바닥 부상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 센터백 조유민(샤르자)이 트리니다드토바고전에 당한 부상으로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조유민은 부상으로 축구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됐다.

조유민은 병원 검진 결과 오른 발바닥의 발꿈치 족저근막이 부분 파열돼 전치 8주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해진 조유민은 국내로 돌아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계획이다. 조유민의 대체 선수로는 2001년생 센터백 조위제(전북)가 뽑혔다.

올 시즌 K리그1 전에서 맹활약한 조위제는 홍명보호의 '훈련 파드너'로 미국 유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진행 중인 사전 캠프에 동행했다. 월드컵 예비 명단 55명에 포함된 조위제는 1일 제출 기한인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에 이름을 올린다.

/뉴시스

전남 장성 태정산 끝자락 15만평 부지의 9홀 골프장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그림 같은 코스 !!

건강한 삶의 질과 굿~샷의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육군 상무대 체력단련장 입니다.

전동승용카트 시스템을 도입 새롭게 인사 드립니다.

※ 평일에는 민간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61-350-2560